

CAM과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 및 태도분석 (보건계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미라^{1*}, 이경하¹, 박미정²
¹한서대학교 보건의료학과, ²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경영학과

Knowledge and Attitude Analysis of CAM and Aromatherapy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Mi-Ra Jeong^{1*}, Gyeong-Ha Lee¹, Mi-Jeong Park²

¹Department of Health Care, Hansoo University,

²Department of Management of Beauty Design, Woos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충청도에 소재한 H 대학의 보건계열학과 학생(528명)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의학과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 및 태도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보완대체의학의 치료법, 치료적 장점에는 긍정적 인식의 태도를 보였고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치료적 효과에 대한 인식도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로마테라피 지식수준은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는 비교적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아로마테라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보건계열학과에서 환자 복지와 증상의 경감을 위해서 전문적 지식과 효율적 치료 적용을 위한 지식개발교육 및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임상 실습 프로그램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보완대체요법, 보완대체의학, 향기치료, 아로마테라피, 에센셜오일.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analyz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CAM and aromatherapy for health department students in H8 university health department students(528 students) in Chungcheongdo-d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reatment methods and therapeutic advantages of CAM showed a positive attitude and the recognition of the therapeutic effect on aromatherapy was somewhat higher. However, the knowledge level of aromatherapy was rather low.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showed a relatively high awareness of the need for education in CAM, but aromatherapy showed a relatively low percep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patient welfare and symptom in health depart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knowledge training for knowledge application and effective treatment and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program for various treatment methods.

Key Words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Fragrance therapy, Aromatherapy, Essential Oil.

1. 서론

과학의 발달로 현대의학은 인간의 수명연장이라는 놀라운 혜택을 가져왔으나 반면에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에 의한 과거에 없던 수많은 질병 발병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 만성질환과 관련된 통증 및 질병의 증가는 현대

의료 분야에 새로운 치료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의학의 약물사용 및 남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현대인의 질병과 건강관리는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약물적, 침습적인 치료 방법의 대안으로 자연에서 비 약물적, 비 침습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안전한 치료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

*Corresponding Author : Mi-Ra Jeong (jlovemer@naver.com)

Received March 15, 2018

Accepted May 20, 2018

Revised May 10, 2018

Published May 28, 2018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중국, 인도, 티벳, 이집트와 같은 국가에서 건강 증진,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요가, 운동, 침술 등을 이용하여 수 천년동안 사용되어진 전통적 의료형태이다[2]. 즉 CAM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의학적 및 약리학적 치료와 치유효과가 포함된다. 따라서 CAM은 전통적인 의료 관행으로 현대의학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다양하고 광범위한 보완의료 및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의 영역이다[3]. 지난 수십 년 동안 CAM은 비 침습적이며 비 약물적인 방법으로 통증이 없는 치료를 위한 약물 결핍의 이점, 적용 용이성, 효과성, 경제적 측면 등의 이유로 질병관련 실무자와 환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관리 방법으로 전 세계에 걸쳐 적용이 확대되었다[1,4].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67%가 적어도 하나의 CAM요법을 수행하였으며 일생동안 약 40~42%가 수행되어진다. 또한 미국 내에서 성인의 CAM 사용빈도는 계속 증가 있으며,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약 1억 5천 8백만 명의 미국 성인이 피부, 간 질환, 당뇨, 천식, 만성 질환, 통증 완화 및 조절 등을 목적으로 연평균 17달러 이상을 CAM에 사용한다고 하였다[5].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는 통증 조절의 치료 및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비 약리학적인 방법으로 주요 치료제인 에센셜오일(essential oil)을 이용하는 CAM의 요법 중 하나이다. 향기로운 식물의 꽃, 껍질, 줄기, 잎, 뿌리, 과일, 수지, 씨앗 등에서 추출된 휘발성 화합물인 에센셜오일은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주요 치료제이다.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에 따라 향기와 치료특성이 서로 다른 에센셜오일은 신체의 화학 작용과 상호 작용하는 화합물로 인해 측정기관, 시스템 및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6]. 즉 아로마테라피는 에센셜오일을 피부, 소화 기관 및 후각체계에 흡입, 마사지, 목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부 투과성을 이용하여 진정, 항균, 항염증, 진통제, 살균, 우울증, 소화 불량, 두통, 불면증, 근육통,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부어 오른 관절 관련 합병증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 극복에 도움을 준다[2,3].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아로마테라피는 심리적 메커니즘 및 간접적인 물리적 효과를 일으켜 비 약리학적, 비 침습적 방법으로 현대의학의 약물치료와 병행 시 뛰어난 상승 작용 효과가 있다[6].

기존 CAM과 아로마테라피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 커리큘럼의 보완 대체 요법 : 간호사 교육자를 위한 새로운 방향[7], CAM에 대한 간호학과 학생의 주관성 연구[8], 간호대학생의 보완대체요법 인식 및 이용실태 [9], CAM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적용 요인에 관한 연구[10]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전문직 또는 보건전문가과정에 있는 보건계열학과를 중심으로 한 CAM과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과 인식도에 관한 연구 분석은 효율적인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폭넓은 보건교육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CAM으로서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 및 태도분석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CAM과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 및 태도분석 연구를 통하여 향후 보건계열 전공자들에게 CAM으로서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폭넓고 종합적인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자 연구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대상자는 충청도에 소재한 H 대학의 보건계열학과인 물리치료학과, 보건복지학과,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3인이 대학의 각 학과를 방문하여 5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완전한 설문응답자 528명(96%)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설문항목은 기존연구에서 이용되었던 항목을 전문가 2인과 충분히 검토 및 수정 보완하여 연구대상자 3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항목을 재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의 설문도구로 사용하였다[11].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나이, 성, 학년, 전공) 4문항과 CAM과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보완점, 치료법, 치료적 장점, 지식 수준, 치료효능에 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척도('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13이었다.

2.3 연구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였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목적과 연구 대상자가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SPSS 버전 23.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요인분석(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 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면,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서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2.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이 일부 보건계열(물리치료학과, 보건복지학과, 작업치료학)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 성별, 신장, 몸무게, 학년, 전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평균연령은 21.16세(± 1.88)이었고, 성별은 여자 338명(56.5%), 남자 170명(28.4%)이었다. 평균학년은 2.61년(± 1.17)이었다. 전공은 작업치료학과가 185명(30.9%)으로 가장 많았으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28)

Characteristics	n(%) or Frequency (M \pm SD)*
Age(yr)	21.16 \pm 1.88
Gender	
Female	338(56.5)
Male	170(28.4)
Grade	2.61 \pm 1.17
Majo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185(30.9)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177(29.6)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166(27.8)

* Mean \pm Standard Deviation

며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 177명(29.6%), 보건복지학과 166명(27.8%) 순위로 나타났다 Table 1.

3.2 CAM에 대한 보완점, 치료법, 치료적 장점

CAM에 대한 보완점, 치료법, 치료적 장점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한 동질적인 요인들로 조합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CAM의 보완점, 현대의학에 적용 가능한 CAM의 치료법, CAM의 치료적 장점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 No.3인 '인체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촉진 한다'는 요인 분석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였다. CAM의 보완점인 요인 1의 문항14는 '전문가의 확충이 필요하다', 문항 15는 '건강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하다', 문항 12는 '과학적 실증적 입증 필요하다', 문항 11은 '전문적인 국가 공인 인증이 필요하다', 문항 16은 '전문 CAM의료 병원이 필요하다', 문항 13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야 한다'로 정의하였고, 현대의학에 적용 가능한 CAM의 치료법 요인 2의 문항 10은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문항 9는 '통증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문항2는 '병원치료를 도와주는

Table 2. Factor analysis of complementary, complementary, and therapeutic advantages of CAM

Name	Factor			CE*	α *
	No	1	2		
Supplementary points of CAM	14	.839			.785
	15	.801			.777
	12	.799			.787
	11	.776			.709
	16	.706			.758
	13	.688			.665
CAM therapy applicable to modern medicine	10		.781		.676
	9		.749		.609
	2		.692		.612
	6		.586		.592
Advantages of CAM	1		.549		.391
	4			.785	.701
	8			.682	.614
	7			.666	.707
	5			.624	.616
Eigenvalue	3.845	3.376	3.259		
Dispersion variance(%)	24.031	21.102	20.37		
Cumulative dispersion variance(%)	24.03	45.13	65.503		
KMO(Kaiser-Meyer-Olkin)					.91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 4936.037
					df(p) 120(0.000)

1. Factor loading: '.'은 0.5이하를 나타냄

2. α * : Cronbach Alpha 3. C* : Chi-Square 3.CE* : Common extraction

보조적인 치료법이다', 문항 6은 '현대의학과 병행이 필요하다', 문항 1은 '병원에서 행하여지는 치료 이외의 치료법이다' 로 정의하였으며, CAM의 장점인 요인 3의 문항 4는 '현대의학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문항8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문항7은 '치료의 극대화를 위해서 적용이 필요하다', 문항 5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은 질병의 예방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로 정의하였다. Table 2

3.3 CAM에 대한 보완점, 치료법, 치료적 장점

CAM의 보완점, 치료법, 치료적 장점을 살펴보면 최댓값 5점 만점에서 CAM의 보완점은 3.68, 현대의학에 적용 가능한 CAM의 치료법은 3.42, CAM의 장점은 3.21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Complementary, alternative, and therapeutic advantages of CAM (N=528)

Factor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SD
Factor 1	1	5	3.68±0.70
Factor 2	1	5	3.42±0.57
Factor 3	1	5	3.21±0.65

Factor 1:Supplementary points of CAM
 Factor 2:CAM therapy applicable to modern medicine
 Factor 3:Advantages of CAM

3.4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수준 및 치료효능에 대한 인식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 및 치료적용 정도를 동질적 요인들로 조합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한 결과이다.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 및 치료제료의 적용정도의 문항은 2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뉘었다. 요인 1은 아로마테라피의 지식으로 문항 6은 '아로마오일 보관시 햇빛, 열에 약하므로 차광병에 보관해야 한다', 문항 8은 '아로마오일은 2~4가지 종류를 블렌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 문항 3은 '연령에 따라 아로마오일의 사용량이 다르다', 문항 7은 '아로마오일 사용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 문항 9는 '아로마오일은 꽃, 열매, 줄기, 수지, 뿌리에서 추출한다는 것을 안다', 문항 2는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 아로마오일의 성분과 효과가 다르다', 문항 1은 '재료 종류마다 추출방법이 다르다', 문항 4는 '아로마오일은 캐리어 오일에 희석하여 사용한다', 문항 5는 '아로마오일은 100% 순수 정유를 말한다' 로 정

의되었다. 요인2는 아로마테라피의 치료적용으로 문항 17은 '자연요법으로 자연적 치유를 상승시킨다', 문항 12는 '문체성 피부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다', 문항 18은 '어린아이, 임산부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항 14는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 문항 16은 '만성적 질환에 효과적이다', 문항 19는 '쉽게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문항 15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문항 10은 '아로마테라피는 CAM이다', 문항 13은 '비만관리에 효과적이다' 로 정의되었다. Table 4

Table 4. Factor analysis of knowledge and treatment applications

Name	No	Factor		CE*	Cronbach Alpha		
		1	2				
A knowledge of aromatherapy	6	.827		.603	.915		
	8	.799		.566			
	3	.796		.636			
	7	.785		.603			
	9	.783		.449			
	2	.776		.655			
	1	.775		.686			
	4	.724		.613			
	5	.644		.613			
	Therapeutic application of aromatherapy	17		.825		.686	.910
12			.791	.662			
18			.783	.617			
14			.763	.603			
16			.755	.570			
19			.752	.582			
15			.731	.541			
10			.718	.521			
13			.692	.494			
Eigenvalue			5.44	5.29			
Dispersion variance(%)			30.20	29.41			
Cumulative dispersion variance(%)			30.20	59.61			
KMO(Kaiser-Meyer-Olkin)					.91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df(p)	5562.970 153(.000)		

1.CE*:Common extraction

3.5 아로마테라피 치료효과에 대한 인식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 및 치료적용 정도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최솟값 1점 최댓값 5점으로 측정된 결과는 '아로마테라피는 CAM이다'는 3.01점, '성인병 치료에 효과적이다'는 2.88점, '문체성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다'는 3.25점, '비만관리에 효과적이다'는 2.92점, '항균작용이 뛰어나다'는 3.16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3.02점, '만성적 질환에 효과적이다'는 3.17점, '자연요법으로 자연적 치유를 상승시킨다'는 3.15점,

‘어린이 임신부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3.14 점, ‘쉽게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3.3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Knowledge and treatment of aromatherapy (N=528)

	Mean±SD
Aromatherapy is a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3.01±.743
Effect on treating geriatric diseases	2.88±.788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problematic skin diseases	3.25±.809
Effect on obesity management	2.92±.832
Antibacterial action	3.16±.803
Reduce the side effects of drugs	3.02±.793
Effect on chronic diseases	3.17±.779
Natural remedies help with natural healing	3.15±.799
Safe for children and pregnant women	3.14±.890
Easy to apply	3.30±.813

3.6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정도

아로마테라피 지식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최솟값 1점과 최댓값 5점으로 측정된 결과는 ‘사용시 주의 사항을 알고 있다’는 2.11점, ‘햇빛, 열에 약하므로 차광병에 보관’은 2.37점, ‘연령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다’는 2.30점, ‘2~4 종류 블렌딩 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2.28점, ‘정유는 케리어 오일에 희석 사용’은 2.15점,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 오일의 성분과 효과가 다르다’는 2.35점, ‘아로마 오일은 100% 순수 정유를 말한다’는 2.23점으로 다소 낮은 지식 수준을 보였으나 ‘종류에 따라 추출방법이 다르다’는 2.53 점, ‘꽃, 열매,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다’는 2.88점으로 중간 수준의 지식을 보였다. Table 6

Table 6. A knowledge of aromatherapy (N=528)

Items	Mean±SD
Precautions when using	2.11±.820
Keeps shade bottles because it is weak in light and heat	2.37±.994
Usage varies according to age	2.30±.972
Blending 2 to 4 species is synergistic	2.28±.983
Use diluted aroma oil in carrier oil	2.15±.942
Depending on the region where the oil is produced and the effect is different	2.35±.029
Aroma oil refers to 100% essential oils	2.23±.963
Extraction method is different according to kind	2.53±1.096
Extract from flowers, fruits, stems, roots	2.88±1.125

3.7 CAM과 아로마테라피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보건계열학과 전공에 따른 CAM과 아로마테라피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최솟값 1점과 최댓값 5점으로 측정된 결과이다. ‘전공별로 CAM의 교육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학과가 3.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작업치료학과 3.02점, 물리치료학과 2.95점 순위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CAM 수업이 개설된다면 수강할 의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학과 3.15점, 물리치료학과 2.95점, 작업치료학과 2.86점 순위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2$). ‘CAM의 실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학과가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 3.15점, 작업치료학과 3.02점 순위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본인의 전공과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학과 3.27점, 물리치료학과 3.14점, 작업치료학과 3.02점 순위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아로마테라피 학과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학과 3.16점, 물리치료학과 3.08점, 작업치료학과 3.03점 순위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315$).

Table 7

Table 7. Recognition of CAM and aromatherapy curriculum and department establishment according to major (N=528)

Items	Groups(n)	Mean±SD	p
Need for CAM courses	A	2.95±0.93	.001
	B	3.30±0.85	
	C	3.02±0.91	
Plan to take classes	A	2.95±0.96	.012
	B	3.15±0.93	
	C	2.86±0.91	
Training course required	A	3.15±0.88	.001
	B	3.37±0.87	
	C	3.02±0.87	
Applicable to major	A	3.14±0.86	.001
	B	3.27±0.82	
	C	2.92±0.91	
Established aromatherapy department	A	3.08±0.83	.315
	B	3.16±0.81	
	C	3.03±0.87	

A: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n:177) B: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n:166) C: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n:185)

4. 고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CAM과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 및 태도분석을 연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CAM에 대한 보완점, 치료법, 치료적 장점에 대한 요인 평균 비교의 연구결과를 보면 CAM의 보완점은 3.68점, 현대의학에 대한 보완치료법은 3.42점, CAM의 장점은 3.21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긍정적 인식의 태도를 보인 선행연구[9,12,13]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CAM의 치료는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미국 성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현대의학에 대한 보완적 형태로 CAM을 사용한다[14]. 그러나 CAM의 보완점으로는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다’라는 문제인식이 있으나, 최근 임상연구 및 과학적 증명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충분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10,15].

아로마테라피의 치료효과에 대한 인식의 연구결과는 ‘쉽게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가 3.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제성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다’는 3.25점, ‘만성적 질환에 효과적이다’는 3.17점,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는 3.16점, ‘자연요법으로 자연적 치유를 상승시킨다’는 3.15점,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3.14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3.02점, ‘아로마테라피는 CAM이다’는 3.01점, ‘성인병 치료에 효과적이다’는 2.88점, ‘비만관리에 효과적이다’는 2.92점의 순위로 나타나 치료 효과에 대한 인식은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아로마테라피는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이용하여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적용과 응용이 용이하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판단되어진다. 아로마테라피는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에 에센셜오일을 흡수시켜 신체적 통증경감, 스트레스, 감정적 증상, 고혈압, 만성적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교적 적용이 쉬운 CAM이다[16,19,20].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수준은 ‘꽃, 열매,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다’가 2.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종류에 따라 추출방법이 다르다’는 2.53점, ‘햇빛, 열에 약하므로 차광병에 보관’은 2.37점,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 오일의 성분과 효과가 다르다’는 2.35점, ‘연령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다’는 2.30점, 2~4종류를 블렌딩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2.28점, ‘아로마 오일은 100% 순수 정유를 말한다’는 2.23점, ‘정유는 케리어 오일에 희석 사

용’은 2.15점,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고 있다’는 2.11점을 보였다. 연구결과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은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교, 전문적 기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의 받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아로마테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오일은 화학물질의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화학작용과 상호작용하는 화합물로 신체의 특정기관 및 시스템(system)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지식습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의료 전문가에 의한 전통적인 의료서비스인 아로마테라피 치료법이 민간요법을 통해 보고된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확대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역량을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필요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10,17,18].

CAM과 아로마테라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CAM학과 개설에 대한 인식도’는 보건복지학과가 3.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AM수업이 개설된다면 수강할 의향’에서는 보건복지학과 3.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AM의 실습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보건복지학과가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전공과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학과 3.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의대 또는 일반 대학교에서 교육되어지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치료의 수단이다. 그러나 CAM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환자에게 적절한 적용과 치료 형태의 접근법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미국의 약학과에 CAM 교과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로마테라피의 선택 과목은 개설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상황이다[17,18]. 따라서 CAM과 아로마테라피의 치료적 적용뿐만 아니라 안전성, 효능평가에 대한 과학적, 실무적, 교육적 접근을 통한 전문적 지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CAM의 치료법, 치료적 장점에는 긍정적 인식의 태도를 보였고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치료적 효과에 대한 인식도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로마테라피 지식수준은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의 CAM의 교육의 필요성에는 비교적 높은

인식의 태도를 보였으나 아로마테라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의 태도를 보였다. CAM과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사회 내의 긍정적 태도변화로 인하여 의료 전문가들은 CAM과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강관리 전문가에 의한 CAM과 아로마테라피의 확대실행과 적용을 위해서는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인식의 접근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CAM으로서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한 환자 복지와 증상의 경감을 위해서 효율적 치료 적용을 위한 지식개발교육 및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임상실습 프로그램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1] Y. Niket & C. Harish. (2017). Suppression of inflammatory and infection responses in lung macrophages by eucalyptus oil and its constituent 1,8-cineole: Role of pattern recognition receptors TREM-1 and NLRP3, the MAP kinase regulator MKP-1, and NFκB, *Journal of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12(11), 1-19.
DOI: 10.1371/journal.pone.0188232.
- [2] B. Ali, N. A. A. Wabel, S. Shams, A. Ahamad & F. Anwar. (2015). Essential oils used in aromatherapy: A systemic review. *Asian Pacific. Journal of Tropical Biomedicine*, 5(8), 601-611.
DOI: 10.1016/j.apjtb.2015.05.007
- [3] M. R. S. Vásquez & P. A. A. A. García. (2017). Aromatherapy with two essential oils from Satureja genre and mindfulness meditation to reduce anxiety in humans. *Journal of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7(1), 121-125.
DOI: 10.1016/j.jtcme.2016.06.003
- [4] K. Chichetto, C. N. Okafor, J. S. Harman, S. S. Canidate, C. L. Cook & R. L. Cook. (2016).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 for HIV management in the state of florida: medical monitoring project. *The Journal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2(11), 880-886.
DOI: 10.1089/acm.2016.0190
- [5] V. Nowak, A. L & D. M. Steve. (2008). Social-cognitive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merican Journal of Health*, 39(2), 80-90.
DOI: 10.1080/19325037.2008.10599019
- [6] L. Huang & L. Capdevila.(2017). Aromatherapy improves work performance through balanc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The Journal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3(3), 214-221.
DOI: 10.1089/acm.2016.0061
- [7] S. R. Sok, J. A. Erlen & K. Bun Kim. (2004).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in nursing curricula: A new direction for nurse educato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9), 401-405.
DOI:10.3928/01484834-20040901-12
- [8] E. Y. Park, E. N.Lee, J. Y. Kang, H. O. Ju, S. S. Kim, E. J. Choi & H. S. Kim. (2011). Nursing students' subjectivity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East-West Medicine Research*, 17(1), 31-39.
- [9] H. J. Kim & S. G. Hong. (2014). Nursing students' recognition of complemental alternative medicine and actual condition of use (Object of study : nursing students in Jeollanam-do Province). *The Korean journal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3(3), 1-9.
- [10] M. R. Jeong, S. H. Jo, D. J. Baek.(2017). Recognition and Application Factors of College Students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417-423.
DOI:10.15207/JKCS.2017.8.12.417
- [11] F. Fewell, K. Mackrodt.(2005).Awareness and practice of complementary therapies in hospital and community settings within Essex in the United Kingdom. *Complement Ther Clin Pract*, 11(2),130-136.
DOI: 10.1016/j.ctnm.2004.08.005
- [12] K. Templeman, A. Robinson & L. McKenna.(2017). Complementary medicine teaching in Australian medical curricula: The student perspective. *Collegian*,488. 7.
DOI:10.1016/j.colegn.2017.10.010
- [13] S. M. Berthold, E. C. Wong, T. L. Schell, G. N. Marshall, M. N. Elliott, D. Takeuchi & K. Hambarsoomians. (2007). U.S. Cambodian refugees'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or mental health problems. *Psychiatric Services*, 58(9), 1212-1218.
DOI: 8000/docview/213078382?accountid=44466
- [14] P. L. Lua & N. S. Zakaria. (2012), A brief review of current scientific evidence involving aromatherapy use for nausea and vomiting.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18(6), 534-540.
DOI: 10.1089/acm.2010.0862
- [15] A. A. Levitan. (2000). Essential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clinician's complete reference to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4(20), 2649-2651.

DOI: 8000/docview/211340116?accountid=44466

[16] S. H. Liu, T. H. Lin & K. M. Chang. (2013). The physical effects of aromatherapy in alleviating work-related stress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aiwan.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1(3), 158-163.

DOI: 10.1155/2013/853809

[17] R. d'Angelo. (2002). Handbook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in mental health. Aromatherapy. In S. Shannon (Ed.), *San Diego, CA: Academic Press*, 71-92.

DOI: 10.1016/B978-012638281-5/50005-X

[18] A. Butje, E. Repede, A. B. FNP & M. M. Shattell. (2008). Healing scents: An overview of clinical aromatherapy for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 Mental Health Services*, 46(10), 46-52.

DOI:10.3928/02793695-20081001-12

[19] J. J. Wu, Y. j. Cui, Y. S. Yang, M. S. Kang & S. C. Jung. (2014). Modulatory effects of aromatherapy massage intervention on electroencephalogram, psychological assessments, salivary cortisol and plasma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2(3), 456-462.

DOI:10.1016/j.ctim.2014.04.001

[20] S. E. Lakhan, H. Sheaffer & D. Tepper. (2016). The Effectiveness of Aromatherapy in Reducing Pa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ain Research and Treatment*, 2016, 1-13.

DOI: 10.1155/2016/8158693

이 경 하(Gyeong-Ha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7년 2월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복지학석사)
- 2018년 2월 : 한서대학교 보건의료학과 보건교육 (보건학박사)

▪ 관심분야 : 아로마테라피, CAM, 보건교육

▪ E-Mail : gyeong-ha@hanmail.net

박 미 정(Mi-Ra Jeong)

[정회원]



- 2012년 2월 : 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과(향장미용학사)
- 2014년 8월 : 건국대학교 토탈코디네이션학과(뷰티디자인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경영학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메이크업, 아로마테라피

▪ E-Mail : bodyart01@naver.com

정 미 라(Mi-Ra Jeong)

[정회원]



- 2014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향장학 석사)
- 2014년 8월 : 한서대학교 (영문학 석사)
- 2016년 3월~현재: 한서대학교 보건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아로마테라피, CAM

▪ E-Mail : jlovemer@naver.com